

Photonics Movements

광산업동정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이사)에서는 4. 5(월) 광주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166개 회원사와 광산업육성지원기관 임직원 및 광산업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10주년 기념식과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Photonics 2010 Project)의 민간 추진 추진주체로서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 후를 2020년을 조망하는 한국광산업진흥회 2020 중장기발전전략 "KAPD 2020 Project"를 선포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산업육성지원 및 연구기관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광산업육성 1, 2, 3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광산업육성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광산업육성위원회 사무국 역할과 광산업육성관련 11개 연구지원기관간의 혁신네트워크 조직인 광산업육성지원기관협의회 운영주기관 활동 등 광주지역에 광산업이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홍보, 광정보지원센터구축, 국내외마케팅지원, 광산업 통계·조사분석, 광산업 국내외 시장·기술 동향분석 정보제공,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기술컨퍼런스개최, 광산업과 타산업간 융합 신산업발굴

및 사업화지원, LED조명보급사업, LED표준화, 광IT융합 지식정보인프라 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광주 광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데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한국광산업을 대표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광산업이 세계 5대 광산업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KAPD 2020 중장기발전 전략에서 제2의 설립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회원사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인 300개 업체로 확대
2. 한국광기술연구조합을 한국광산업진흥회로 흡수 통합하여 회원사 기술개발지원을 강화





3. 한국 광산업 로드맵을 정립
4.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회원사간 공동협력사업의 발굴과 중앙정부로부터 광산업육성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정책개발을 주도할 광산업 싱크탱크 기능강화
5. 회원사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회원사와의 네트워크강화 및 중앙정부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분회를 설치 등을 통하여 세계 3대 광산업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광산업육성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 4대 조규종 상근부회장 취임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이사)에서는 4. 9(금) 한국 광산업진흥회 3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조규종 상근부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신임 조규종 상근부회장(58·전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은 지난 1980년 전남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BK21사업단장·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지동차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장을 지내는 등 광주지역 경제상황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자체 및 중앙부처, 기업체와의 두터운 인맥으로 광산업 육성정책 마련과 여론을 수렴하는 가교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신임 조규종 상근부회장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산업 육성 및 진흥의 중핵기관으로서 국내 광산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로 거듭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근 광통신 부품 및 LED산업의 호황시기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가칭) ‘광산업체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지원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 할 생각”이라면서 “오는 2015년까지 회원사를 300개사로 확대 및 한국 광산업의 로드맵정립을 통해 중앙정부에 이를 실행할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광산업 민간주진 주체역할 수행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경영지원을 위한 공동협력협약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에서는 회원사의 경영지원, 국제경쟁력강화와 권익보호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 최고수준의 회계·세무·특허·컨설팅 분야 등 4개 전문기관과 회원사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을 지난 3. 25자로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

금번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4개 분야 전문기관은 대주회계법인, 특허법인 세하, (주)대한인베스트먼트, 박봉수 세무사무소 등으로 이들 전문기관은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에 대해 세무, 회계, 특허출원, 재무분석,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컨설팅을 무상

으로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되며 회계감사, 세무신고 대행, 국내외특허출원 등에 있어 기존수수료대비 30%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중심인 회원사의 시급한 경영지원 사업분야인 회원사별 재무분석을 통한 경영전략수립과 투자자금유치·주식공모·코스닥 등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회원사에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체험관’, 솔라시티 광주에 문열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LED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체험관이 호남지역 최초로 3월 17일 광주과학기술원내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개막식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녹색에너지체험관은 광주광역시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사업비 30여원을 들여 2008년부터 조성에 들어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609㎡ ▲LED 체험홍보관 330㎡ 등 총 939㎡의 규모로 조성됐다.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은 20여종의 3D 입체영상관과 수력, 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험물로 구성됐다.

LED 체험홍보관은 도시, 공원·녹지, 상업·미래, 주거·사무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LED 조명의 다양한 적용사례를 보여준다.

광주광역시와 녹색에너지체험관 개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LED산업 육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운영을 맡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람객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 2명을 상주시키고, 원활한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문의 : 062-602-0080)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화려한 서막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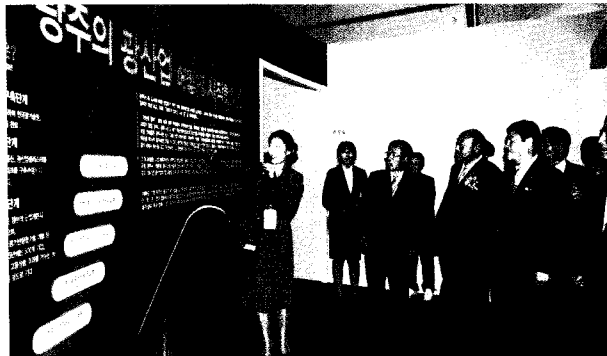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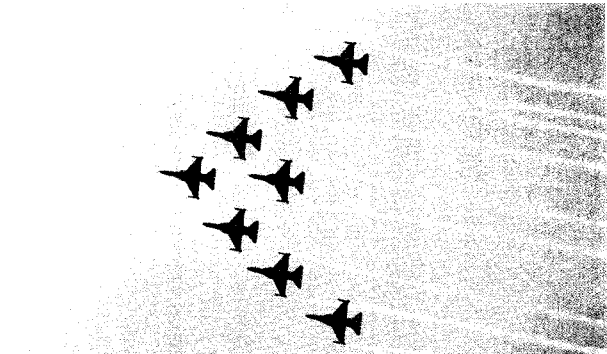
- 행사 첫날 5만여명 관람객 입장
- 4월 과학의 달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 붐버
- 광주시내 빛으로 물들이는 빛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지속



광주광역시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세계 최초의 빛과 광산업을 주제로 한, 광주세계광엑스포가 4월 2일 오후 2시 광주 상무시민공원 내 행사장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9일까지 3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세계광엑스포는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를 시작으로 박광태 (재)광주세계광엑스포 이사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화려한 막을 열었다.

이날 개막식은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외교 사절단 등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번에 광주를 방문한 주한외교 사절단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루시총회(LUCI, 세계빛도시연합) 참가국을 비롯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पाल 등 총 10개국에서 대사, 총영사, 특사 등을 포함한 30여명의 해외 명사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식행사에 앞서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엄숙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당초 밤 8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취소되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슈퍼주니어, 싸인블루, 유키스, 포미닛, 장윤정, 박현빈 등의 초청무대는 인기 가수와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어 광엑스포 개막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무대를 연출했다.

행사 첫날 관람객은 5만여명으로 집계되어 광엑스포의 열기를 실감케 했으며, 특히 입장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입장해 광엑스포를 즐겨 눈길을 끌었다. 광엑스포는 빛과 광산업을 주제로 한 9개의 전시관을 비롯하여 각종 체험 이벤트, 공연, 예술 전시 등 남녀노소 모두 쉽게 '빛'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조화로운 콘텐츠 구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 8일까지 38일간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는 광엑스포는 부대행사로, 4월 9~13일 광주시내 전역을 빛으로 물들이는 '빛 축제' 행사와 상설 행사로 주중에 열리는 '빛고을예술문화마당', 레크레이션 '열린놀이터' 빛 놀이터 '에어바운스' 그리고 스탬프ラリー 등이 준비되어있고, 특별퍼포먼스 '빛의 두드림', 어린이날/어버이날 특별행사로 페이스페인팅 & 타투, 발마사지 서비스 그리고 석고마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4월 23일에는 고싸움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 배경그림은 광산업전시홍보관, 왼쪽아래 그림부터 디자인체험관 디키빌의 공작큐브공간, LED체험홍보관의 주거·사무 공간 ZONE 입.

광주광엑스포 참관객 광산업클러스터 홍보 투어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에서는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기간 중 광산업인프라가 집적화된 첨단지구 광산업집적화단지 및 LED 밸리와 연구지원기관·업체·홍보체험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주세계광엑스포 참관객을 대상으로 광산업클러스터 투어를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36일간(휴일포함) 운영할 계획이다.

■ 투어 코스

광엑스포행사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전자부품연구원 → LED밸리 → 광주테크노파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광기술원 → 한국광산업진흥회광산업전시홍보관 → 에너지관리공단호남기후변화센터(LED체험홍보관, 녹색에너지체험관) → 광주디자인센터(디키빌) → 광엑스포행사장

첨단과학산업단지 광산업 클러스터 홍보 투어는 빛을 만든 지나온 광주의 10년과 빛으로 펼쳐질 향후 광주의 10년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광산업전시홍보관에서는 광산업에 대한 이해와 광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볼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호남기후변화센터의 녹색에너지체험관에서는 3D입체영상관과 수력, 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으며, LED체험홍보관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조명의 다양한 일상 적용사례를 보여주며 체험하는 공간으로 도시, 공원·녹지, 상업·미래, 주거·사무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광주디자인센터의 디자인체험관 디키빌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투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투어 담당자는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이 광주지역 경제를 견인해 가는 효자산업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 3대 광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주세계 광엑스포를 참관하는 일반시민·학생들이 광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직접 체험하고 주변의 가족·친지·동료들에게 홍보하는 광산업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접수 및 문의 : 062-605-9625)

